

현대국어 의문문 종결형식의 구조*

이 유 기(상명대)

< 목 차 >

- | | |
|---------------------|------------|
| I. 머리말 | 3. {-소/으오} |
| II. 의문문의 종결어미와 종결형식 | 4. {-어/아} |
| 1. {-가}와 {-고} | 5. {-재} |
| 2. {-이} | III. 맺음말 |

I. 머리말

이 글의 목적은 통시적 형성 과정을 바탕으로 현대국어 의문종결형식의 형태 구조를 기술하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에는 대우법 및 그 밖의 화용적 기능에 대한 논의가 수반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문제도 가능한 범위 안에서 다루어 보고자 한다.

국어의 문장종결형식은 대개 융합을 통하여 형성되었기 때문에 문장종결형식의 형성 과정을 외면하고서는 문장종결형식에 대한 정확한 형태적 기술에 도달할 수 없다. 통시적 사실을 바탕으로 최대 분석의 방법을 적용하면 의문문에 쓰이는 종결어미에는 {-가}와 {-고}, {-이}, {-소/으오}, {-어/아}, {-지}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중 의문문 고유의 종결어미는 {-가}와 {-고}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청자 대우 표지이다.

의문종결형식의 대우법적 성격 및 그 밖의 화용적 특성 중에는 다시 조명해 보아야 할 것이 많다. 특히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은가, -을까, -은고, -을꼬'나 '-나' 등을 하계체로 이해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 종결형식들이 청자를 의식하지 않는

* 이 논문은 2002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2-075-A00060).

독백으로도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의문문에 쓰이는 종결어미와 종결형식을 표로 제시한다. ()로 묶인 것은 다른 등급의 형식이 보충법(suppletion)에 의해 쓰인 것이다. 보조사의 통합에 의한 해요체 종결형식은 논의하지 않는다.

<표-1> 현대국어 의문문에 쓰이는 종결형식과 종결어미

의문종결형식		해라체	하계체	하오체	하십시오체	해체
의문표지	-가	-은가, -을까 -오냐, -오랴 -냐	(-은가, -을까)		-습니까 -습디까	
	-고	-은고, -을꼬	(-은고, -을꼬)			
청자대우표지	-아		(-어/아, -냐)			-어/아 -냐 -을래
	-이	-니 -데/디				
	-소/으오			-소/으오		
	-지		(-지)			-지

II. 의문문의 종결어미와 종결형식

이 장에서는 종결어미 {-가}와 {-고}, {-이}, {-소/으오}, {-어/아}, {-지}를 중심으로 하여, 이들에 의해 구성되는 의문 종결형식의 형태 구조와 화용적 특성을 살펴보기로 한다.¹⁾

1. {-가}와 {-고}

{-가}와 {-고}가 구성하는 의문종결형식에는 해라체의 ‘-오냐, -오랴’와 매개모음이 없는 해라체의 ‘-냐’, 해라체와 하계체에 두루 쓰이는 ‘-은가, -을까, -은고, -을꼬’, 하십시오체의 ‘-습니까, -습디까’가 있다

1) 이 글에서는 복합어미는 ‘ ’로, 단일어미는 { }로 나타낸다.

1.1. ‘-으냐, -으랴, -으련

‘-으냐’와 ‘-으랴’는 중세국어 ‘-으녀’와 ‘-으려’의 발달형인데, 각각 「으니+가」, 「으리+가」의 구조로 이루어진 것이다. 중세국어의 판정의문 형식 ‘-으녀, -으려’는 {-가}의 이형태인 {-거}가 /ㄱ/ 약화를 거쳐 {-어}로 실현된 것이다. 중세국어에서 {-거}라는 종결형식이 확인되지 않지만, 현대 동남방언에서는 {-거}가 쓰이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나진석(1971:319)에서 제시한 다음의 자료는 흥미로운 것이다.

(1) 위 繼往開來아 仲尼나 다 르시리 잇거 (道東曲, 武陵續集)

‘-으냐’는 내포문에서는 생산적으로 쓰이지만 주문장에서는 지나치게 격식적인 어법으로 느껴진다. 일반적으로 ‘-으냐’ 대신에 ‘-니, -나’가 쓰이거나, 매개모음이 없는 ‘-냐’가 쓰인다(후술).

‘-으냐, -으랴’의 구조와 관련하여 검토해야 할 문제는 두 가지이다 첫째 여기에 쓰인 종결어미가 {-가}인가에 대한 검증이다. 그것은 ‘-으냐, -으랴’에 {-요}가 통합하지 못하는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어/아}는 {-요}의 통합을 허용하고 {-가}는 앞에 오는 선어말 형태소의 종류에 따라 {-요}와 통합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는데, ‘-으냐, -으랴’는 {-요}의 통합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으냐, -으랴’의 마지막 요소가 {-가}임을 알게 하는 더 유력한 근거는 ‘-으냐, -으랴’가 의문문에만 쓰인다는 사실이다. {-어/아}는 모든 문체법에 두루 쓰이는데 ‘-으냐, -으랴’는 의문 형식으로만 쓰이는 것이다. ‘-으냐, -으랴’의 종결어미가 {-가}라는 것은 역사적 사실과도 부합한다(이승욱 1963:450-451, 안병희 1965:6). ‘-으냐, -으랴’의 {-가}가 {-아}로 교체된 것은 {-으니-}와 {-으리-}의 기원적 구성 요소인 서술격 조사 뒤에서 /ㄱ/이 유성후두마찰음 [ŋ]으로 실현된 것의 반영인 것이다.

둘째, ‘-으냐, -으랴’에서 {-가}를 제외한 나머지 요소를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으냐’에 {-느-}가 들어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으냐’는 매개모음을 갖지만, {-느-}는 매개모음을 갖지 않는 선어말 형태소이다. 둘째, ‘-느냐’와 ‘-더냐’의 존재도 ‘-으냐’에 {-느-}가 들어있지 않음을 입증한다. ‘*-느냐-’나 ‘*-더느냐’는 확인되지 않기 때문이다. 셋째, ‘-으냐’에 {-느-}가 들어있다면 ‘-으냐’는 「느+이+아」의 구조일 텐데, ‘이’의 성격을 규정할 수 없다. 넷째, ‘-으냐’가 서술격 조사와 형용사 어간에 쓰일 수 있는 것도 {-느-}가 ‘-으냐’의 구성 요소가 아님을 시사한다.²⁾ 그렇다면 ‘-으냐’에서 {-가}를 제외한 나머지 요소는 {-으니-}일

2) ‘-으냐’ 앞에 {-느-}가 통합한 ‘-느냐’는 형용사에 쓰이지 않는다. 형용사 {없}에 ‘-느냐’가 쓰이는 것은 개별 어휘의 특성으로 볼 수밖에 없다.

것이다.

‘-으랴’에서도 {-으리-}가 분석된다. ‘-으랴’는 ‘-으냐’와 달리 {-느}나 {-다}를 선행시키지 못하는데, 이 차이는 역사적 관점에서 관형사형 어미 {-은}과 {-을}의 차이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느-}나 {-더-}가 {-은} 앞에는 통합하면서, {-을} 앞에는 통합하지 못하는 것과 동일한 현상인 것이다. ‘-으랴’ 앞에 ‘왔-히나’ ‘-겠’ 또는 ‘-었겠’이 통합할 수 있는 것은 ‘-으냐’의 경우와 동일하다.

융합형 ‘-으련’도 ‘-으냐’와 관련이 있는 종결형식이다. ‘-으련’은 「-으려 하느냐>-으려느냐>-으련」의 과정을 거쳐 형성된 것이기 때문이다. 윤석민(2000:159)은 ‘-으련’이 [+동작성]을 지닌 서술어에 쓰이고 2인칭 주어와만 호응한다고 하였는데, 그것은 결국 ‘-으려느냐’의 특성이자. 흥미로운 것은 ‘-으려 하느냐’는 [-동작성]을 지닌 서술어에도 쓰이고 3인칭 주어문에도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이다.

1.2. ‘-냐’

매개모음을 가진 ‘-으냐’는 구어(口語)의 주문장에 잘 안 쓰인다. 그 대신에 매개모음이 없는 ‘-냐’ 또는 후술할 ‘-니, -냐’가 쓰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냐’도 종결어미 {-가}를 구성 요소로 하는 종결형식이다. ‘-냐’는 두 가지 경로를 거쳐 형성된 종결형식이다. 하나는 ‘-으냐’에서 매개모음을 탈락시킴으로써 형성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느냐’에서 {-느-}를 탈락시킴으로써 형성된 것이다.

(2) 가. 검으냐 → 검냐 cf. 푸르냐

나. ① 떡을 많이 먹었느냐? → 떡을 많이 먹었냐

② 그 때는 형편이 괜찮았느냐? → 그 때는 형편이 괜찮았냐?

다. ① 이 떡을 먹어 보겠느냐? → 이 떡을 먹어 보겠냐?

② 그 사람들이 형편이 괜찮겠느냐? → 그 사람들이 형편이 괜찮겠냐?

(2가)의 ‘검냐’는 매개모음이 탈락된 것인데, 이것은 모음 뒤의 ‘-으냐’와 같이 매개모음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예: 푸르냐)에 유추된 것일 가능성이 크다. (2나, 다)의 ‘-냐’는 ‘-느냐’에서 {-느-}가 탈락한 것이다. 이것은 (2가)의 ‘검냐’류에 유추된 것일 가능성이 있다. 어쨌든 (2가)의 ‘-냐’는 ‘-으냐’의 교체형이고, (2나, 다)의 ‘-냐’는 ‘-느냐’의 교체형이다.

1.3. ‘-은가, -을까’와 ‘-은고, -을꼬’

‘-은가, -을까’와 ‘-은고, -을꼬’는 일반적으로 각각 하나의 종결어미로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은가:~을까’ 및 ‘-은고:~을꼬’의 대립은 공시적 관점에서도 이 중

결형식을 구성하는 종결어미가 {-가}와 {-고}임을 보여 준다.

‘-을까, -을꼬’에 쓰인 종결어미를 {-가}의 이형태 {-까}와 {-고}의 이형태 {-꼬}로 기술할 것인가, 아니면 {-가}와 {-고}가 쓰인 것으로 보고 된소리 자질을 {-은-}과 {-을-} 쪽으로 붙여서 기술할 것인가? 여기서는 {-까}나 {-꼬}를 인정하지 않고 된소리 자질은 앞 요소가 갖고 있는 것으로 보아, 형태소 {-을-}이 이형태 {-을-}으로 실현된 것으로 간주하고자 한다. /ㄹ/ 다음의 무성 평음이 경음화하는 것은 광범위하게 확인되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은-}을 {-느-}의 변이형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 ‘-은가, -은고’는 매개모음을 갖고 있지만 {-느-}는 매개모음이 없는 형태소이다. 둘째, {-느-}가 ‘-을까, -을꼬’의 구성 요소라면 ‘는가, 는고’에서는 “*{-느-}가 쓰인 셈이 되며, ‘-던가, -던고’에서는 “*{-느-}가 쓰인 셈이 된다.

{-은-}과 {-을-}을 동명사 어미로 보고 {-가}와 {-고}를 보조사 내지 첨사로 기술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명사형 어미가 선어말 형태소를³⁾ 앞세우지 않는 데에 비해 {-은-} 앞에는 {-느-}, {-더-} 등이 선행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은가, -을까’는 동명사 어미 {-은-}과 {-을-}에서 분화된 시상 표지 {-은-}과 {-을-}에 종결어미 {-가}나 {-고}가 통합한 것으로 기술해 둔다.

일반적으로 ‘-은가’계 구문은⁴⁾ 본질적으로는 간접의문문 종결형식이고, 직접의문문에 쓰일 때에는 하계체 등급에 속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먼저 간접의문문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기로 한다. 중세국어 의문문과 관련하여 이승욱(1963:190-191)은 ‘-은다, -을다’ 구문을 질문 또는 직접적 의문이라 하고, ‘-은가’계 구문을 의문 또는 간접적 의문이라 하였다. 직접의문을 질문과, 간접의문을 자문과 동일시한 것이다. 이현희(1982가:3-5)에서는 간접인용 방식의 의문문과 자문문을 모두 간접의문문이란 용어로 포괄하였다. 그러나 안병희(1965:73-74)와 안병희(1967:219)에서는 간접적 의문과 자문이 동일한 것이 아님을 시사하였고, 서정목(1987:24-25)은 이러한 견해를 좀 더 구체화하여, 직접의문과 간접의문은 문장 구성(통사)의 문제이고, 질문과 자문은 문장 사용(화용)의 문제라 하여 구별하였다.

‘-은가’계 종결형식에는 청자를 존대 표지가 없다. 그러므로 형태적인 면에서 보면, 이 종결형식은 해라체 종결형식이다. 그런데 ‘-은가’계 구문은 ‘대화’에서는 하계체로 쓰인다. 종래에 ‘-은가’계 구문을 하계체로 간주해 온 것은 대화의 상황을 중심으로 보면, 타당한 일면이 있다. 그러나 ‘-은가’계 의문문은 질문문뿐 아니라

3) 이른바 ‘선어말어미’는 단어 끝의 요소가 아니므로 결코 ‘어미’가 아니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선어말 형태소’라 부른다.

4) ‘-은가, -을까, -은고, -을꼬’를 통칭하여 ‘-은가’계 의문 종결형식이라 부르고, 이 종결형식에 의한 의문문을 ‘-은가’계 의문문 또는 ‘-은가’계 구문이라 부르기로 한다.

독백적 성격의 자문문에도 쓰이는데, 청자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는 자문문은 해라체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은가’계 구문의 대우 등급은 두 가지로 나누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은가’계 종결형식이 청자 존재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보면, 해라체로 쓰이는 것이 이 종결형식의 기본적인 용법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은가’계 종결형식이 형태적으로는 해라체이면서 실제 ‘대화에서 하계체로 쓰이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러한 의문은 ‘-은가’계 종결형식의 기본적 기능은 자문(내적 표현, 독백)’이라는 것을 전제하면 쉽게 풀릴 수 있다. 자문문의 청자는 화자 자신이므로 자문문의 청자 대우 등급은 당연히 해라체이다. 그런데 자문문이 대화에서 주문장으로 쓰이면, 화자는 독백을 하고 청자는 그 독백을 엿듣는다는 것을 화자와 청자 모두 전제하게 된다. ‘-은가’계 구문이 대화에서 하계체 등급에 속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내적 표현을 통한 우회적 질문은 청자에게 응답을 요구하는 힘의 강도를 낮추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청자를 약간 대우해야 하는 상황에서 쓰일 수 있는 것이다.

- (3) 가. 자네는 이제 어디로 갈 건가
 cf. 너는 이제 어디로 갈 {거니, 거냐, 거야?}
- 나. 우리 앞으로 뭘 하는 게 좋을까?
 cf. 우리 앞으로 뭘 하는 게 { 좋겠니, 좋겠느냐 }?

(3가, 나)의 ‘-은가’계 구문에서는 ‘자네, 우리’ 등의 대명사가 주어로 쓰였다. 2인칭 대명사는 원칙적으로 자문문에서는 쓰일 수 없다. 그러므로 (3가, 나)는 표면적으로는 자문이 아니라 질문이다. 그러나 ‘-은가’계 구문을 통한 질문은 우회적인 것이다. ‘-은가’계 구문이 본질적으로 자문문이기 때문이다.

‘-은가’계 구문이 자문 형식이라는 주장은 15세기의 ‘-은가’계 의문문에 1·3인칭 주어만이 쓰였다는 사실에 의해서도 지지받을 수 있다. ‘-은가’계 구문을 화자의 내적 표현(독백)인 자문 형식이라고 본다면, 이 구문에 청자가 주어로 나타나기 어렵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14. ‘-습니까’와 ‘-습디까’

‘-습니까/디니까’와 ‘-습디까/디디까’는 각각 「습+느+으랏+가」, 「습+디+으랏+가」의 구조를 가진 종결형식이다. 여기서 검토해야 할 형태론적인 문제는 다음 네 가지이다.

(4) ‘-습니까’와 ‘-습디까’의 형태론적 문제

- 가. 종결어미의 분석
- 나. {-습-}의 기능
- 다. 청자 존재 표지 {-으잇-}을 분석하는 문제
- 라. ‘-습니까’에서 {-느-}를 분석하는 문제

첫째, ‘-습니까, -습디까’에는 종결어미 {-가} 대신 {-까}가 쓰이고 있는데 여기서 제기되는 문제는 이 종결형식들의 마지막 형태소 연쇄가 ‘으잇+까’와 ‘으이+까’ 중 어느 것이냐 하는 것이다. 둘 다 무방해 보이나, 전술한 ‘-은가’계 종결형식에서와 같은 태도를 취하여, {-가}와 {-고}의 이형태를 인정하기보다는 {-으이-}의 형태론적 이형태 {-으잇-}을 인정하기로 한다.

둘째, ‘-습니까, -습디까’의 {-습-}의 기능도 설명되어야 할 문제이다. 중세국어에서 객체 존재 기능을 가지던 {-습-}({-습-})이 근대국어 이후 청자 존재의 기능을 갖게 된 현상이 지적된 바 있다.⁵⁾ 그러나 어느 시기의 {-습-}({-습-})이든 [화자 검양]이라는 기본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면, 객체에 대한 [화자 검양]은 [객체 존재]가 되고, 청자에 대한 [화자 검양]은 [청자 존재]가 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 형태소가 근대국어에서 표면적으로 [청자 존재]의 기능을 얻게 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현대국어의 {-습-}도 어느 위치에서든 [화자 검양]을 나타낸다. 문장종결형식 중 청자 존재 형태소의 출현 위치에 쓰이면 반드시 청자에 대한 [화자의 검양]을 나타내기 때문에 하십시오체 표지가 되는 것일 뿐이다.

셋째, ‘-습니까, -습디까’에는 하십시오체 표지가 하나 더 있다 {-으잇}이 그것이다. {-으잇-}은 중세국어 {-으잇-}의 후계형이다. 현대국어에서는 {-으이/으잇-}이 소멸하였다는 것이 일반적 인식인데, 그것은 문자의 환영(graphic illusion)에 말미암은 것이다. 현대 중앙어에서는 이 형태소가 외현되지 않으나, 그것은 이 형태소가 항상 모음으로 끝나는 {-느-}, {-더-}, {-으리-}, {-사-} 등에 후행하여 이들과 함께 한 음절을 이루기 때문이다. 김태엽(1999:306-3-7)은 경북방언에 {-이-}가 존재함을 밝힌 바 있다.

넷째, ‘-습니까’의 ‘-닛-’의 구조는 「느+으잇」과 「으니+으잇」 중 어느 것인가? ⁶⁾ 만약 후자가 옳다면 ‘-닛-’은 「은(관형사형 어미)+이(명사)+이(서술격 조사)+으잇」의 발달형일 것이다. ‘-습니까/디니까’ 앞에는 {-느-}가 통합하지 못하지만, 그것을

5) {-습-}이 근대국어에서 청자 존재 기능을 갖게 되었다는 것은 허웅(1963:64-70), 안병희(1967:207), 김정수(1984:224) 등에서 지적되었다. 이현규(1985:14-15)는 {-습-}이 청자 대우 형태소로 변화한 시기를 16세기 말로 파악하였다.

6) ‘-습디까’에서 {-더-}의 이형태 {-디-}를 인정하는 견해도 있지만, ‘-습디까’에 {-잇-}을 분석해 낸다면 {-더-}가 분석되는 것은 자명하다.

근거로 {-느-}가 ‘-습니까/ㅂ니까’의 구성 요소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느-}의 서열은 {-습-}의 뒤이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만약 ‘-닛-에 {-으니-}가 들어있다면 ‘-습니까/ㅂ니까’는 “*{-습으니까/ㅂ으니까}가 되었어야 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문제의 ‘-닛-’의 구조는 「느+으잇」이다. 이 때에 문제가 되는 것은 ‘-습니까/ㅂ니까’가 형용사나 서술격 조사에도 쓰인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느-}를 분석하기가 어려워진다. 그러나 그것은 {-느-}의 존재를 인식하기 어려워질 정도로 ‘-니까’가 재구조화하였기 때문일 것이다.⁷⁾

서정목(1987:92)은 {-느-}를 ‘-니까’의 구성 요소로 파악하면서도 상황에 따라 ‘-니-’의 구조를 「느+으이」와 「으니+으이」로 나누어야 할 것이라 하였고, 이현희(1982나:151)은 ‘-느니-’가 ‘-니-’로 응축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러나 「느니>니」의 변화를 인정한다면, ‘-닛-’을 「느+으니+으잇」으로 분석해야 할 것이고, 결국 하나의 음소 /ㄴ/이 「느+으니」의 연쇄를 다 부담하는 셈이 된다. 그러므로 ‘-닛-’을 공식적으로는 「느+으잇」으로 기술해야 하겠다.

2. {-이}

{-이}는 해라체 종결어미이다. {-이}와 외형상 비슷한 {-으이}가 있으나, {-으이}는 세 가지 면에서 {-이}와 구별된다. 매개모음을 갖고 있다는 점, 하계체로 쓰인다는 점, 해라체의 {-이}가 서술문과 의문문에 쓰이는 데 비해, 하계체의 {-으이}는 서술문·명령문·청유문에 쓰인다는 점이 그것이다.⁸⁾ {-이}가 구성하는 종결형식에는 ‘-니’와 ‘-테/디’가 있다.

15세기 악장에 나타나는 ‘-으니, -으리’는 호쇼서체 문맥에 쓰인 것이 많아서 거기서 호라체의 {-이}를 분석하기가 망설여지지만, 다음 자료들은 호라체 종결어미 {-이}를 보여 준다.

7) 재구조화에 따른 통합 관계의 변화는 서술법의 ‘-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네’는 분명히 ‘-느’이다의 후계형임에도 불구하고 형용사나 서술격 조사에도 쓰이고 있는 것이다.

8) 해라체의 {-이}는 서술법의 ‘-네, -데, -으리, -을께’, 의문법의 ‘-니, -디/테’에서 분석되고, 하계체의 {-으이}는 서술법의 ‘-으이, -을세’, 명령법의 ‘-게’, 청유법의 ‘-으세’에서 분석된다. ‘-네’는 흔히 하계체로 이해되고 있으나, 내적 표현(독백)에도 쓰이는 ‘-네’가 하계체일 수는 없다. 기원적으로는 여기서 {-으이}를 분석할 수 있겠지만 공식적으로는 해라체의 {-이}가 구성하는 종결형식으로 기술할 수밖에 없다. 용언 어간 뒤에 직접 쓰이는 하계체 서술법의 {-으이}는 ‘고마우이’, ‘반가우이’에서처럼 형용사에서 한해서 쓰이고 있는데 문장체에서나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영근(1976:49)에서는 {-으이}가 ‘-네’로 합류되었다고 설명하였다. 하계체 종결어미인 {-으이}가 해라체 종결형식 ‘-네’로 대체된다는 것은 불합리해 보인다. 그러나 해라체의 내적 표현 형식 ‘-네’를 통한 우회적 어법으로써 청자를 하계체 등급으로 대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5) 가. 江山 조흔 景을 힘 쉰 이 닷톨 양이면 니 힘과 니 分으로 어이 軒여 잇들
 쏜이 (海東歌謠 周氏本 403)
 나. 내 혼즈 님즈여니 님라셔 드톨소니 (樂學拾零 256, 靑丘永言 珍本 149)
 다. 님 향흔 마음이야 어는 때 니즐소니 (古今歌曲 41)
 라. 엇디 先生을 두어 날 보다 못홀소니 내 님음을 드르라 (朴諺 下:56나)

2.1. '-니'

'-니'는 '-느냐'와 같이 해라체에 속한다. '-니'는 해라체 형식이기 때문에 {-요}와 통합하지 못한다. '-니'는 간접인용문에 쓰이지 못하고, '-느냐'는 간접인용문에 서만 자유롭게 쓰이고, 그 밖의 환경에서는 잘 쓰이지 않는다. '-니'의 구조는 「느이」로 생각된다. '-니'는 동사·형용사·서술격 조사 어간에 직접 쓰일 수 있고, '-었-', '-겠-'이나 {-으시-}의 개입도 가능하다.

고영근(1974:132)는 {-느-}의 이형태 {-니-}과 '-냐'의 단축된 이형태 {-이}가 결합하여 '-니'가 형성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즉 '-니'를 '-느냐'의 단축형으로 본 것이다. 이현희(1982가:92-94)는 19세기 자료에서 해라체의 '-니'를 확인하고, '-느냐'의 의문 첨사 탈락형인 '-느니(=느니)'가 「느니>느이>니>니」의 변화를 거쳐 '-니'로 정착하였다고 보았다. 그는 또 {-으니-}가 이형태 {-이}로 실현되었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으니-}가 종결어미 자격을 얻은 것으로 본 것인 듯하다. 서태룡(1985:175)은 동작 동사나 '-았-, -겠-' 뒤에 나타나는 것은 「느+이」로, 상태 동사나 서술격 조사 뒤에 나타나는 것은 「은(동명사 어미)+으이(하계체 어미)」로 기술하였다. 서정목(1987:41)도 이원적으로 보는 태도를 취하여, 하나는 「느이>느이 >쳐 >니」의 과정을 거친 것으로, 또 하나는 「느니이>니이>니」의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았다.⁹⁾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서술법의 '-네'와 '-테'가 각각 「느이>니」와 「더이>테」로 변화하고, 청유법의 '-세'가 「사이>새>세」의 변화 과정을 겪은 것과 구조적으로 일치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니'를 둘로 나누어 기술하는 것은 공시적 사실에 말미암은 것이기는 하지만 선뜻 수용하기가 어렵다.¹⁰⁾

'-니'에는 매개모음이 없으므로 여기에 {-은}이나 {-으니}가 들어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무엇보다 *'-느니'가 쓰이지 않는다는 것이 {-느}가 '-니'의 구성 요소임

9) 청자 대우 기능 면에서 볼 때 「느이-」의 후계형은 '-니'가 아니라 서술법의 '-네'이다. 서술법의 '-네'는 대화에 쓰일 때에는 하계체이다. 이 글에서는 공시적으로는 '-네'가 해라체 내적 표현 형식이면서 대화에서는 하계체로 쓰이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으이}가 '-네'의 구성 요소라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결과적으로 형태소 융합이 특정 형태소(-으이)의 기능 상실을 초래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의문법의 '-니'는 단순한 해라체이다. 어떤 경우에도 하계체로 쓰이는 일이 없다.

10) 임흥빈(1984:171-173)은 '-니'는 접속어미 {-으니}가 문장종결형식으로 나타난 것으로 간주하였다.

을 시사한다. *‘-더니’가 비정상적인 어법으로 여겨진다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더니}는 {-느-}와 통합할 수 없는 특징을 갖는 것이다. {-느-}가 ‘-니’의 구성 요소라면, ‘-었니, -겠니’는 ‘-었느-, -겠느-’의 통합을 보이는 셈이 되는데, 이러한 통합이 가능한 것은 ‘-었-, -겠-’이 기원적으로 {잇-}(有)을 구성 요소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느-}가 ‘-니’의 구성 요소라고 할 때에 설명해야 할 것은 ‘-니’가 형용사나 서술격 조사 뒤에도 쓰인다는 사실이다. 이 현상은 ‘-니’가 재구조화한 다음 형태소 통합 관계의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2. ‘-테/디’

‘-테/디’의 구조는 「더+이」로 기술할 수 있다. 서술문에서는 ‘-테’만이 쓰이고, 의문문에서는 ‘-테’와 ‘-디’가 다 쓰이는데, 이들의 구조는 동일하다. ‘-테/디’는 용언 어간이나 ‘-었-, -겠-, -었겠-, {-으시-}’ 뒤에 쓰일 수 있다. ‘-테/디’ 앞에는 {-느-}가 통합하지 못하는데, 그것은 *‘-느더’ 구성이 없는 것에 비추어 당연한 현상이다. ‘-테/디’도 ‘-니’와 같이 간접인용문에는 쓰이지 않는다. ‘-테/디’는 선행 요소가 무엇이나에 따라 문체법이 결정된다.

(6) ‘-테/디’의 문체법

가. 어간+테	→ 서술문, 의문문
나. 어간+디	→ 의문문
다. 었, 겠, 었겠 으시+ 테	→ 서술문
라. 었, 겠, 었겠 으시+ 디	→ 의문문

고영근(1974:122-123)은 ‘-테’에서 {-네}를 분석하였고, 이현희(1982:147)은 ‘-테’를 {-더-}의 변이형 {-드/드-}에 {-이}가 통합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테/디’가 「더+이」로 구성된 종결형식이라는 것과, {-이}가 문체법 표지가 아니라 대우법 표지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의 대우 등급에 대하여는 주의가 필요하다. ‘-테’를 ‘-네’와 함께 하계체로 파악하는 경향이 있으나, 공시적으로는 둘 다 해라체이다. 부모가 자식에게 의문의 ‘-테/디’를 쓸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 판단은 정당하다. 그러므로 역사적으로는 ‘-테’가 {-으이-}와 관련되더라도, 공시적으로는 ‘-테/디’의 종결어미는 하계체의 {-으이}가 아니라 해라체의 {-이}로 기술해야 할 것이다.

{-요}의 통합 가능성 면에서 ‘-테/디’는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해라체 종결형식에는 {-요}가 통합하지 못한다. 그런데 ‘-테/디’는 {-요}와 통합하기도 하고 통합하지 못하기도 한다. ‘-디’에는 ‘-요’가 통합하지 못하나, ‘-테’에는 {-요}가 통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테’와 ‘-디’를 서로 다른 종결형식으로 볼 수는 없다. 이러한 혼란은 재구조화의 결과 통합 관계가 변화한 것일 수도 있고, 방언의 확산에 따른 혼란으로 생각되기도 한다.

3. {-소/으오}

{-소/으오}는 의문문·서술문·명령문에 두루 쓰이므로 문체법 표지가 아니고 청자 대우 표지이다. 일반적으로 청자 대우를 나타내는 종결어미는 모든 문체법에 두루 쓰일 수 있다. 그러나 {-소/으오}는 서술문·의문문·명령문을 구성할 수는 있지만, 청유문은 구성하지 못한다.

{-소}와 {-으오}를 동일한 형태소로 보기에 이 둘의 음운적 차이가 너무 크다. 그러나 그것은 역사적 사실을 고려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소}는 ‘-스불- > -스오- > -소’의 과정을 거친 것이고, {-으오}는 ‘-스불- > -스오- > -으오- > -으오’의 과정을 거친 것이다. 그렇다면 {-소}와 {-으오}의 관계는 {-습}과 {-습}의 관계에 비례하는 것이고, {-으오}의 ‘으’는 매개모음이 아니라 ‘-습’의 ‘△이 변화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소}와 {-으오}의 분포는 상보적인 모습을 보여 주지 않는다. 더구나 {-소}가 쓰일 환경에 ‘-으소’가 쓰이는 일도 있다. 이들의 분포를 문체법에 따라 나타내 보기로 한다. {-소/으오}는 청유문을 구성하지 못하는데, 그 원인은 다른 글로 미루기로 한다.

<표-2> {-소}, {-으오}, {-으소}의 분포

	서술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자음 뒤	모음 뒤	자음 뒤	모음 뒤	자음 뒤	모음 뒤	자음 뒤	모음 뒤
-소	결소	X	결소	X	결소	(X)	X	X
-으오	결으오	가오	결으오	가오	결으오	가오	X	X
-으소	X	X	X	X	결으소	가소	X	X

명령문에만 쓰이는 ‘-으소’는 {-소/으오}와는 다른 형태소이다.¹¹⁾ 그렇다면 {-소/으오}는 서술문·의문문·명령문에서 동일한 분포를 보여 주는 셈이 된다. {-소}는 자음 뒤에서만 쓰이고, {-으오}는 자음과 모음 뒤에 두루 쓰인다. 그러나 자음 뒤의 {-으오}는 문어적이거나 부자연스러운 어법으로 느껴진다. 모음 뒤의 {-으오}

11) 명령법의 ‘-으소’는 다른 글에서 다루고자 한다

도 약간 부자연스럽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서술격 조사와 통합한 ‘이오는 자연스럽게 느껴진다. 그러므로 모음 뒤의 {-으오}가 부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것은 대체 형식 ‘-어요/아요’의 활발한 쓰임 때문이라 생각된다. 서정목(1987:173)에서는 {-으오}가 인위적인 표준어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는데, 모음이나 서술격 조사 뒤의 {-으오}로 보아 그렇게 보기 어려울 것이다. 모음 뒤에서 {-으오}는 부자연스럽지만 그 이형태 {-으우}는 자연스럽게 쓰인다. 자음 뒤의 {-으오}는 모음 뒤의 {-으오}에 유추된 인위적인 종결어미일 가능성이 있다.

4. {-어/아}

{-어/아}는 연결어미에서 발달한 종결어미로서, 모든 문체법에 두루 쓰인다. 종결어미 {-어/아}를 구성 요소로 하는 의문 종결형식에는 {-어/아}와 재구조화한 ‘나’, ‘-올래’가 있다. {-어/아}는 용언 어간과 서술격 조사 및 선어말 형태소 {-으시-} 뒤에 바로 쓰일 수 있으나, {-더-} 뒤에서는 쓰이지 않는다. {-어/아} 앞에 {-느-}가 통합할 수 있는지는 분명치 않다. 이 글에서는 의문종결형식 ‘-나’를 ‘느+아’의 구조로 간주하게 되는데(후술), 이러한 추론이 정당하다면, {-어/아} 앞에 {-느-}가 놓일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어/아}는 ‘-었-’과 ‘-겠-’ 또는 ‘-었겠-’을 선행시키기도 하지만, 이 경우는 어간에 직접 쓰인 것에 준한다. ‘-었-’과 ‘-겠-’이 기원적으로 {-었-}을 구성 요소로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4.1. {-어/아}

{-어/아}는 간접인용문의 종결어미로 쓰이지 못한다.

- (7) 가. 철수는 영화가 떠났느냐고 나에게 물었다.
나. ‘철수는 영화가 떠났어’고 나에게 물었다.

{-어/아}가 간접인용문 종결어미로 쓰이지 못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어/아}는 여러 문체법에 두루 쓰이는 종결어미이므로 {-어/아} 구문의 문체법(언표내적 효력)은 문말억양에 크게 의존하게 된다. 그런데 간접인용문은 문말억양이 나타나기 어려운 환경이어서, {-어/아} 구문은 간접인용문에 쓰이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종래에 {-어/아}가 ‘상관적 장면’에 쓰인다거나, [+현장성]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이해한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그러한 성격 역시 {-어/아}가 간접인용문에 쓰이지 못하는 요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관점으로는 청자를 적극적으로 의식하지 않는 독백에도 {-어/아} 구문이 쓰일 수 있는 현상을 설명하기 어렵다

4.2. '-나'

'-나'의 형태 구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고영근(1974:133), 이현희(1982가:95-96) 및 이현희(1982나:157) 등에서는 '-나'를 '-는가'의 응축형으로 간주하였다. 한동완(1984:120-121)에서는 '-나'가 동남방언에서 확산된 것으로 파악하였는데, 이것은 이기갑(1978:83)이 19세기 자료에서 '-나'를 확인하였을 뿐, 그 이전의 소급형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흥미로운 견해이기는 하나, 동남방언 '-나' 자체의 역사도 밝혀지지 않았다. 동남방언에서는 '-으냐'가 잘 안 쓰이지만, 그렇다고 '-나'가 '-으냐'로부터 변화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으냐'와 '-나'는 세 가지 면에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매개모음의 유무, {-느-}와의 통합 관계, {-요}의 통합 가능성이 그것이다. '-나'를 '-느냐'의 응축형으로 보기도 어렵다. {-요}의 통합 가능성 면에서 이 둘은 상이한 성격을 보이기 때문이다.

'-나'의 구조와 관련한 문제의 초점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나'를 구성하는 앞의 요소가 {-느-}와 {-으니-} 중 어느 것이냐 하는 것이고, 둘째는 '-나'를 구성하는 종결어미가 {-가}와 {-어/아} 중 어느 것이냐 하는 것이다.

첫째, '-나'의 형태적 특성에는 {-느-}를 구성 요소로 갖고 있음을 시사하는 현상과 {-으니-}를 구성 요소로 갖고 있음을 시사하는 현상이 혼재되어 있다. {-느-}나 {-으니-} 외에는 '-나'의 첫 요소로 추정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되므로 '-나'의 첫 요소가 이 둘 중의 어느 하나라는 전제 위에서 논의를 전개하기로 한다.

- (8) '-나'의 첫 요소가 {-으니-}가 아니라 {-느-}임을 시사하는 현상
 - 가. {-으니-}에는 매개모음이 있고 '-나'에는 매개모음이 없다
 - 나. 동사 어간 뒤에서 '-느냐'가 쓰이지 않는다
 - 다. 서술격 조사 뒤에 '-나가 쓰이지 않는다.
 - 라. 만약 '-나'의 첫 요소가 {-으니-}라면 종결어미는 {-가}의 이형태 {-아}일 텐데, 이 경우에는 '-더냐'와 '-더냐'의 공존을 설명하기 어렵다 '-더냐'와 '-더냐' 모두를 「더+으니+가」로 분석해야 하기 때문이다.
 - 마. 만약 '-나'의 첫 요소가 {-으니-}라면 「동사 어간 + 나」는 과거 시제로 해석된다. 그러나 실제로 「동사 어간 + 나」는 과거 시제로 해석되지 않는다.
- (9) '-나'의 첫 요소가 {-느-}가 아니라 {-으니-}임을 시사하는 현상
 - 가. '-나'가 형용사 어간 뒤에 바로 쓰일 수 있다.
 - 나. '-더냐'가 쓰이는데 '-더느-'는 있을 수 없는 구성이다.

'-나'가 보여 주는 이러한 양면성 때문에 서태룡(1985:173)은 동사나 '-았', '-겠-'에 통합한 '-나'는 「느+아」로, 형용사나 서술격 조사에 통합한 '-나'는 「은(동명사 어미)+아」로 분석하였다. 동남방언의 '-나, -노'를 기술한 서정목(1987:44)도 동사

어간에 바로 통합된 ‘-나’는 「느+으니+가(고)」 또는 「으니+가(고)」로, 형용사 어간이나 {-더-} 뒤에 쓰인 ‘-나’는 「으니+가(고)」로 기술하였다. 일찍이 나진석(1971:332)은 동남방언의 ‘-내와 ‘-노’가 각각 「나 아」와 「나 오」로 이루어졌다고 보았다.

이 글에서는 ‘-나’의 첫 요소가 {-느}임을 시사하는 현상이 그 반대의 경우보다 훨씬 풍부하다는 현상에 주목하여 ‘-나’의 구조를 ‘느+아’로 간주하고, 그러한 관점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을 해명하고자 한다. {-느-}를 구성 요소로 하는 ‘-나’ 앞에 형용사 어간이나 {-더-}가 놓일 수 있게 된 것은 {-느-}의 이형태 {-ㄴ-}과 {-아}가 통합된 ‘-나가 하나의 종결어미로 재구조화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이것은 {-느-}를 구성 요소로 하는 서술법의 ‘-네’가 형용사 어간이나 서술격 조사 뒤에 쓰이게 된 것과 유사하다. ‘-나가 형용사 어간 뒤에는 쓰이면서 서술격 조사 뒤에 쓰이지 않는 것은 통시적 변화가 한 방향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분화되기도 함을 보여 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즉 ‘-이’가 쓰이지 않는 것은 역사적 흔적을 보여 주는 것이고, 「형용사 어간 나」가 쓰이는 것은 재구조화의 결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나’를 구성하는 종결어미가 {-아}라는 것은 분명하다 여기에 쓰인 종결어미를 {-가}로 본다면, {-느-}의 이형태 {-ㄴ-} 뒤에서 {-가}가 {-아}로 교체된 셈인데 그러한 교체의 조건을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나’ 구문은 하계체 질문문에도 쓰이고 해체 자문문에도 쓰인다. 자문은 화자의 내적 표현이다. 그렇다면 ‘-나가 두 가지 화용적 기능을 가지는 것은 내적 표현인 자문 형식이 대화인 질문문에게까지 그 영역을 확대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나’에 청자 존재 표지가 없다는 것도 ‘-나가 해체 종결형식임을 입증한다. 해체의 ‘-나가 하계체 상황에서 쓰일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것은 ‘-나가 질문에 쓰일 때에는 화자는 독백을 하고 청자는 그 독백을 엿듣는다는 것을 화자와 청자 모두 가정하게 되기 때문이다. 내적 표현을 통한 우회적 질문은 청자의 응답을 요구하는 힘의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청자를 약간 대우해야 하는 상황에서 쓰일 수 있는 것이다.

4.3. ‘-을래

‘-을래’는 ‘-을라 해’가 융합한 종결형식인데(서정목 1987:145), ‘해(=하+어/아/여)’가 종결어미 {-어/아}를 구성 요소로 가지므로 ‘-을래’도 형태적으로는 해체 형식에 속한다.¹²⁾ 그런데 화용적인 면에서 ‘-을래’는 해체와 해라체 두 가지 성격을 다

12) 동남방언의 ‘-을래’ 구문은 의문문으로는 자연스럽게 쓰이지만, 서술문으로는 잘 안 쓰인다. ‘-을라해’는 ‘-을라고 해’의 융합형이다.

보여 준다. 특정 종결형식이 해라체인가 해체인가를 판단하기 위한 유용한 기준은 실제적인 화용 상황을 살펴보는 것이다. 예를 들면, 어린 아이가 젊은 부모에게 쓸 수 있거나, 대학 후배가 1~2년 선배에게 쓸 수 있는 종결형식은 해체 종결형식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밖에 {-요}의 통합 가능성도 기준이 될 수 있겠으나, 특정 종결형식의 등급을 판단하는 것은 형태적 특성보다는 화용적 용법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올래’는 서술문을 구성하기도 하고 의문문을 구성하기도 한다. 그런데 서술문의 ‘-올래’는 해체이고 의문문의 ‘-올래’는 해라체이다. ‘-올래’가 ‘-올라 해’의 융합형이라면, 마지막 요소인 {-어/아}에 따라 해체 종결형식이 되어야 하는데, 의문문에서 해라체로 쓰이는 것은 융합으로 인해 종결어미 {-어/아}가 외현되지 않는 사실에 딸미암는 것으로 보인다.

‘-올래’ 구문의 주어가 될 수 있는 것은 1·2 인칭인데 1 인칭 주어문은 화자의 ‘의도’를 드러내는 서술문이고, 2인칭 주어문은 청자의 ‘의도’를 묻는 의문문이다.¹³⁾ ‘-올래’ 구문은 청자의 ‘능력’에 대한 질문문으로는 안 쓰인다.

- (10) 가. *열이 그렇게 나는데 학교에 갈 수 있을까?
 나. *그 힘으로 나를 당해 낼 수 있을까?
 (11) 가. *너 배가 아파서 밥 못 먹을래?
 나. *너희들 정말 이렇게밖에 못 할래?

그러나 명령의 기능을 갖는 수사어문에서는 ‘못~올래’ 구문이 쓰일 수 있다.

- (12) 가. 너희들 빨리 못 움직일래?
 나. 너 이 쓰레기 못 치울래?

‘-올래’는 간접인용문에도 쓰이지 못한다. 그것은 전술한 바와 같이 ‘-올래’의 문체법은 문말어양에 의해 구별되는데, 간접인용문은 문말어양이 실현될 수 없는 위치이기 때문이다.

- (13) 가. *철수는 학교에 언제 갈래고 나에게 물었다.(의문문의 간접인용)
 나. *철수는 자기는 학교에 갈래고 나에게 말했다.(서술문의 간접인용)

13) ‘-올래’는 1·2인칭 주어문에만 쓰이고 주어의 [+의도]를 나타내지만 ‘-으려(고) 해’는 1·2·3인칭 주어문에 두루 쓰이고, [-의도]의 상황에서도 쓰인다. 융합형이 아닌 ‘-올라 해’는 3인칭 주어문에서만 자유롭게 쓰인다. 한편 ‘-올래’의 주어로 미지칭의 {누구/누}도 쓰일 수 있으나, 이 때의 {누구/누}는 청자 중의 한 사람이므로 2인칭 주어로 간주할 수 있다

5. {-지}

{-지}는 의문문뿐 아니라 서술문·명령문·청유문에도 두루 쓰이는 종결어미이다. {-지}가 특정 문체법에 국한되지 않는 것은 {-지}가 원래 연결어미였기 때문이다. {-지}는 용언 어간이나 서술격 조사 및 {-으시-}에는 바로 통합할 수 있고, {-느-}나 {-더-}에는 통합할 수 없는데, 이것도 연결어미적 성격을 보여 주는 것이다.¹⁴⁾

{-지}는 {-어/아}와 같이 해체 종결어미이다. 해체 종결어미는 원래 연결어미였으므로 {-지}가 구성하는 종결형식은 기원적으로는 청자 대우 기능과도 무관하다. {-지}가 원래 연결어미였다는 것과 관련하여 {-지}가 {-어/아}와 간접인용문에 쓰이지 않는다는 것도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지}가 간접인용문에 쓰일 수 없는 것은 {-지} 구문의 연표내적 효력은 문말억양에 크게 의존하는데, 간접인용문은 문말억양이 나타나지 않는 환경이기 때문이다.

(14) 가. *철수는 나에게 영희는 학교에 갔지고 알려 주었다.(서술문)

나. *철수는 나에게 영희는 학교에 갔지고 물었다.(의문문)

다. *철수는 나에게 학교에 가지고 말했다.(명령문)

라. *철수는 나에게 학교에 함께 가지고 말했다.(청유문)

해체 종결어미 {-어/아}나 {-지}가 부사형 어미보다 접속어미와 더 유사하다고 본 서정목(1987:125-143)은 부사형 어미 {-지}는 {-디}의 후계형이고, 접속어미 {-지}와 종결어미 {-지}는 {-디비}의 후계형임을 밝혔다. {-지}가 판정의문문에 쓰이면 확인의문문이 되는데, 그것은 ‘앞의 내용을 긍정하고 뒤의 내용을 부정 하는 {-디비}의 의미와 부합한다. 최명옥(1976:156)은 {-지} 의문문은 화자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그것이 옳음을 확인하려는 확인의문문이라 하였고, 장경희(1985:122)는 {-지}의 의미를 ‘이미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한 확인 이라는 양상적 의미로 파악하였는데, 그러한 의미도 {-디 비}의 의미와 관련된다.

그러나 {-지}는 (15가, 나)와 같은 설명의문문에도 쓰이는데 이 때에는 선행 서술 내용을 긍정하는 의미나 이미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한 확인의 의미가 드러나지 않는다. 이러한 현상은 판정의문문의 {-지}가 설명의문문에까지 그 영역을 확대하게 됨으로써 {-지}의 의미가 변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14) ‘-는지(요)’의 {-지}는 원래 의존 명사였다. ‘-는지’ 다음에 목적격 조사 ‘-을/를’과 ‘알다, 모르다’ 등의 동사가 자유롭게 놓일 수 있는 것은 이 {-지}가 명사적 성격을 보이는 것이다. 명사 {-지}와 종결어미 {-지}는 다음과 같은 차이를 보인다.

가. 철수가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겠다.

나. *철수가 왔지 안 왔지 모르겠다.

- (15) 가. 순이가 언제 왔지?
나. 철수는 무얼 하지?

한길(1991:63)은 확인의문문인 {-지} 구문은 ‘추정확인 물음’으로, 설명의문문인 {-지} 구문은 ‘친근하거나 부드러운 물음’으로 기술하였다. {-지}에 의한 설명의문문이 ‘친근하거나 부드러운 물음’으로 느껴지는 것은 {-지}에 의한 질문이 화자의 내적 표현을 통한 우회적 질문이기 때문이다. {-지}가 가진 의미, 즉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다는 것이 바로 화자의 내적 표현 행위이다. 내적 표현은 청자에 대하여 응답을 요구하는 의도를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부드러운’ 말투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효과는 서술문·명령문·칭유문의 {-지}에서도 발견된다.

그런데 {-지} 구문이 2인칭 주어문에도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은 {-지}를 내적 표현 형식으로 기술하는 데에 장애가 되는 것처럼 보인다.

- (16) 가. {너, 자네}는 산을 좋아하지?
나. {너, 자네}는 무슨 분야를 공부하지?

(16가)는 확인의문문인데, [확인]이라는 것 자체가 화자의 내적 표현 행위이다. (16나)는 확인의문문이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격 변화는 ‘-은가’계 구문이 원래는 1·3인칭 주어문에만 쓰이다가 2인칭 주어문에까지 그 영역을 확대하게 된 것을 고려하면 이해할 수 있는 현상이다.

Ⅲ. 맺음말

이 글에서는 현대국어 의문 종결형식의 형태 구조와 통사적·화용적 성격을 논의하였다. 본론의 내용을 요약함으로써 결론으로 삼는다.

- (1) {-가}와 {-고} : {-가}와 {-고}는 의문문에만 쓰이는 의문문 고유의 종결어미이다. {-가}와 {-고}가 구성하는 의문 종결형식에는 해라체의 ‘-으나, -으랴와 매개모음이 없는 해라체의 ‘-냐’, 해라체와 하계체에 두루 쓰이는 ‘-은가, -을까, -은고, -을꼬’, 하십시오체의 ‘-습니까 -습디까’가 있다
- (2) {-이} : {-이}는 해라체 종결어미이다. {-이}가 구성하는 종결형식에는 ‘-니’와 ‘-테/디’가 있다.
- (3) {-소/으오} : {-소/으오}는 문체법 표지가 아니고, 청자 대우 표지이다. 자음

뒤에서는 {-소}와 {-오오}가 쓰이고 모음 뒤에서는 {-오오}가 쓰이는데, 자음 뒤의 {-오오}는 유추에 의해 분포가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4) {-어/아} : 종결어미 {-어/아}를 구성 요소로 하는 의문 종결형식에는 {-어/아}, '-나', '-올래'가 있다. {-어/아}는 연결어미에서 유래한 것이다. {-어/아}는 간접인용문의 종결어미로 쓰이지 못하는데, 그것은 {-어/아} 구문의 언표내적 효력은 문말억양에 크게 의존하는데, 간접인용문은 문말억양이 나타나지 않는 환경이기 때문이다.

(5) {-지} : {-지}는 연결어미에서 발달한 것으로서 여러 문체법에 두루 쓰이는 해체 등급의 종결어미이다. {-지}는 간접인용문에 쓰이지 못하는데, 그것은 {-지} 구문의 언표내적 효력은 문말억양에 크게 의존하는데, 간접인용문은 문말억양이 나타나지 않는 환경이기 때문이다.

주제어 : 문장종결형식, 문장종결어미, 융합, 통시대, 언표내적 효력, 화계

K C I

< 참고 문헌 >

- 교영근(1974), 「현대국어의 종결어미에 대한 구조적 연구」, 『어학연구』 10-1,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 교영근(1976), 「현대국어의 문체법에 대한 연구」, 『어학연구』 12-1, 서울대학교.
- 김정대(1983), 「{요} 청자 존대법에 대하여」, 『가리문화』 2, 경남대학교, 가리문화연구소.
- 김정수(1984), 『17세기 한국말의 높임법과 그 15세기로부터의 변천』 정음사.
- 김창섭(1998), 「복합어」, 『문법 연구와 자료』(이익섭선생 회갑기념논총), 태학사.
- 김태엽(1999), 『우리말의 높임법 연구』, 대구대학교출판부.
- 나진석(1971), 『우리말의 때때김 연구』, 과학사.
- 서정목(1987), 『국어 의문문 연구』, 탑출판사.
- 서정수(1986), 「국어의 서법」, 『국어생활』 7, 국어연구소.
- 서태룡(1985), 「정동사어미의 형태론」, 『진단학보』 60, pp.159-192.
- 안병희(1965), 「후기중세국어의 의문법에 대하여」, 『학술지』 6, 건국대학교.
- 안병희(1967), 「문법사」, 『한국문화사대계』 V 중 「한국어발달사」,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이기갑(1978), 『우리말 상대높임 등급체계의 변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 이승욱(1963), 「의문첨사고 -특히 그 대립의식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26, 국어국문학회.
- 이유기(1997), 『17세기 국어 문장 종결 형식의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논문.
- 이현규(1985), 「객체존대 「-습-」의 변화」, 『배달말』 10, 배달말학회.
- 이현희(1982가), 「국어의 의문법에 대한 통시적 연」, 국어연구 52, 서울대학교 국어연구회.
- 이현희(1982나), 「국어 종결어미의 발달에 대한 관건」, 『국어학』 11.
- 이현희(1985), 「근대국어 경어법의 몇 문제」, 『한신어문연구』 1, 한신대학교 국문과.
- 임홍빈(1984), 「문장종결의 논리와 수행-역양」, 『말』 9, 연세대학교.
- 장경희(1985), 『현대국어의 양태범주 연구』, 탑출판사, pp.1-163.
- 최명옥(1976), 「현대국어의 의문법 연구」, 『학술원논문집(인문·사회과학편)』 15.
- 한 길(1991), 『국어종결어미연구』, 강원대학교 출판부.
- 한동완(1984), 『현대국어 시제의 체계적 연구』, 서강대학교 석사논문.

[Abstract]

The Structure of Korean Interrogative Sentence Final Form

Lee Yuki

Most of Sentence final forms are formed by confusion. So the exact description about the meaning and function of sentence final forms can be possible only when maximum analysis is applied within the limits of structural and semantical explanation.

Sentence final endings {-ka}, {-ko}, {-i}, {-so/euo, -eo/a}, {-tsi} are used in interrogative, and among them the original interrogative's sentence final endings are just {-ka} and {-ko} and the rest are all speech level marker.

Sentence type and speech level belong to pragmatic category. In pragmatic function, '-eunka, -eulk'a, -eunko, -eulk'o, -na, -te/ti, -tsi' can be a problem. They are sometimes used as a 'hake' level in interrogatives. But they are also be used in neutralized speech level, in indirect cited sentence, and even in self-question with no relation to honorific of hearer. So to explain all this, the basic function must be understood.

key words : sentence final form, sentence final ending, confusion, diachrony, illocutionary force, speech level

이 유 기 상명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서울시 종로구 홍지동 7번지 lyg55@hanmail.net
--